

2013년도 폴란드 경제전망

1. 경제성장 현황 및 전망

○ 폴란드 경제 현황 (2011년 이전)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의 활발한 유입 및 안정적인 경제 운영으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특히 2009년 세계 금융위기시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EU 가입국 평균 경제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 같은 폴란드 경제 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탄탄한 내수와 즈워티화 약세로 인한 EU 역내 수출 증대, 건설 및 인프라분야의 활발한 투자 등을 꼽을 수 있음

<폴란드 거시경제 지표(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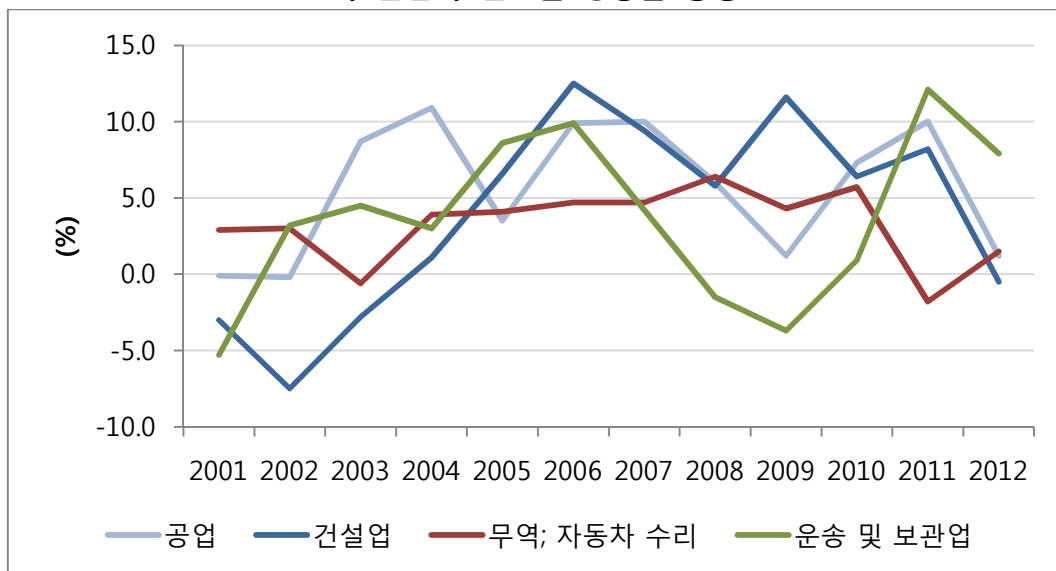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명목 GDP(US\$십억)	529.3	429.6	468.9	513.0
실질경제성장률(%)	5.0	1.7	3.9	4.3
1인당GDP(US\$,PPP) ^a	17,566	17,987	18,909	20,160
물가상승률(HICP기준,%,연평균)	4.3	3.8	2.7	4.2
실업률(%,연평균)	9.8	11.0	12.1	12.4
시장금리(%,연평균)	5.8	3.2	3.1	4.1
수 출(US\$억)	1,787	1,421	1,659	1,952
수 입(US\$억)	2,094	1,497	1,776	2,093
무역수지(US\$억)	-307	-76	-117	-142
연평균환율(US\$대비)	2.41	3.12	3.02	2.96
연평균환율(유로화대비)	3.52	4.33	3.99	4.12
정부재정적자폭(GDP대비%)	-3.7	-7.3	-7.8	-5.1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2013. 01

○ 폴란드 경제 현황 (2012년)

- 폴란드는 2012 유로대회 개최에 따른 인프라 투자 및 고용 증가, 소비심리 촉진 등에 힘입어 201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6%,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내수, 민간소비, 기업 투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경기 경색은 유로컵 관련 인프라 건설 붐으로 급성장 했던 건설업의 버블 붕괴 및 임시직 고용의 종료, 수출의 축소, 고용 및 실질 임금의 감소 등에 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3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폴 통계청이 199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투자, 고용 및 실질 임금 등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 GDP 성장률은 1%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Dziennik Gazeta Prawna, 2012. 12. 3)
- 이에 따라, 2012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폴 투자청, 2013. 01. 29)
 - 무역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성장률 둔화가 관찰

<각 산업의 연도별 성장률 동향>



자료원: 폴 투자청(GUS), 'Gross Domestic Product in 2012 preliminary estimate', 2013. 01. 29

○ 폴란드 경제 전망(단기)

- 폴란드 정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하반기 폴란드 경제 성장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단기 경제 성장 전망치를 0.5~1.0%p 가량 하향 조정하여 2013년 경제성장률을 0.8~2.1% 범위로 발표함
- 민간소비 및 내수 성장률 둔화 예상, EU 기금 기간(2007-2013년) 만료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인한 정부 투자 감소 등에 기인

<기관별 폴란드 2013년 GDP 성장률 전망>

기관명	GDP성장률 (%)	발표일
폴 중앙은행	1.5 (-0.6)	2012. 11. 7
Morgan Stanley	2.1 (-1.5)	2012. 11. 16
Merrill Lynch	1.7 (-0.8)	2012. 11. 1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7 (-0.4)	2012. 12
Nordea 은행	1.8 (-0.5)	2013. 01. 24

*괄호안은 지난번 발표 대비 조정치

자료원: ISI Emerging Markets, 2012. 12. 05; EIU 'Poland Country Report December', 2013. 01; Nordea 은행 'Poland - 2013 economic outlook', 2013. 01; 폴 중앙은행 및 제정부 발표 자료 종합

-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주요 EU 국가들이 경기 후퇴(recession)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실한 폴란드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반증함
- 2014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며 2% 중반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U 국가 단기 GDP 성장률 전망(%)>

	2012	2013	2014
독일	0.8	0.8	2.0
그리스	-6.0	-4.2	0.6
스페인	-1.4	-1.4	0.8
프랑스	0.2	0.4	1.2
이탈리아	-2.3	-0.5	0.8
슬로바키아	-2.3	-1.6	0.9
체코	-1.3	0.8	2.0
헝가리	-1.2	0.3	1.3
폴란드	2.4	1.8	2.6
Euro 사용 17개국	-0.4	0.1	1.4
EU 27개국	-0.3	0.4	1.6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2

○ 폴란드 경제전망 (장기)

- 2011년 11월 재집권에 성공한 폴란드 여당은 EU 집행위에서 지적되어왔던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법 개정, 세수 확대 등의 개혁을 진행 중으로, 당초 정부재정적자를 2012년에는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목표는 2013년 이후에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정부 재정 개정안에서도 2012년과 2013년의 정부 재정적자폭은 GDP의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폴란드 국가 부채 규모 전망>

단위: 십억 즈워티 (괄호안은 GDP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부채	815.3 (53.5)	845.8 (52.4)	867.6 (51.4)	893.3 (50.5)	941.5 (50.2)	991.4 (49.6)
정부부채	859.0 (56.3)	894.7 (55.5)	920.9 (54.5)	944.8 (53.4)	990.0 (52.8)	1,039.0 (52.0)

자료원: 폴 경제부 'The Public Finance Sector Debt Management Strategy in 2013-2016', 2012. 9

-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발표한 폴란드의 국가 신용등급은 우리나라보다 1단계 낮은 A-~A2 수준이며 등급 전망은 stable을 유지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기관별 폴란드 국가 신용 등급 및 전망>

기관	S&P	Fitch	Moody's
등급	A-	A-	A2
전망	Stable	Stable	Stable
최종조정일	2011. 11. 29	2011. 11. 21	2011. 8. 5

자료원: 각 기관 발표 종합, 2013. 1월 기준

- 또한 폴란드 헌법은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5%를 넘어설 경우 정부 지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재정 부실을 제도적으로 방지
- 이러한 제도적 규제 및 정부의 개혁 의지로 인해 폴란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민간소비와 수출의 성장이 중장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폴란드 경제 세부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1.7	2.6	3.4	3.7	4.2
산업생산성장률(%)	3.8	6.0	7.8	9.3	9.9
민간소비증가율(%)	0.9	1.2	2.7	3.9	4.5
정부지출증가율(%)	-1.7	1.5	2.0	2.2	3.1
고정투자증가율(%)	0.5	3.5	4.9	5.5	6.3
내수증가율(%)	0.6	2.1	3.4	4.1	5.0
수출 증가율(%)	3.7	6.0	6.2	6.8	7.1
수입 증가율(%)	1.3	5.2	6.5	7.8	8.9
물가상승률(CPI, %)	2.7	2.5	2.3	1.9	1.8
정부재정적자폭(GDP대비%)	-3.0	-2.8	-2.1	-1.6	-1.4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2013. 01

2. 분야별 동향 및 전망

가. 무역 동향

○ **수출입 규모 현황**

- 폴란드의 수출입 규모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감소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그러나 2012년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폴란드의 수출입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1-11월까지 총 수출액은 미화기준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한 1,6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이보다 더 크게 줄어 전년보다 8.4%가 감소한 1,798억 달러를 기록함

<2012년 폴란드 수출입 현황 및 중기 전망>

단위: 십억USD

구분	2012 1-11 월 ^a	2013 ^b	2014 ^b	2015 ^b	2016 ^b	2017 ^b
수출	169.3	200.6	223.4	257.1	307.6	356.8
수입	179.8	212.1	239.5	275.0	326.5	376.3
무역수지	-10.6	-15.9	-17.7	-19.6	-21.1	-22.3

자료원: a. 폴란드 통계청(GUS) 'Foreign trade turnover in total and by countries', 2013. 01. 11;

b.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2013. 01

○ 중동부 유럽으로의 수출입 급증

-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무역에서 EU 가입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수출에서 EU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며,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교역대상국인 선진국들 및 유럽국가들로의 수출입은 모두 감소한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로의 수출입이 크게 증가함

<폴란드 지역별 무역 의존도(USD 기준)>

구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전체 대비 비중(%)	
		2012년 1-11월	2011년 1-11월
수출			
선진국	-6.7	82.2	84.5
-EU국가 ^a	-6.8	76.0	78.2
-유로존국가 ^b	-8.1	52.0	54.3
개발도상국	8.0	8.1	7.2
중동부유럽국 ^c	13.4	9.7	8.3
수입			
선진국	-12.3	64.1	66.9
-EU국가 ^a	-12.6	57.2	59.8
-유로존국가 ^b	-12.0	44.9	46.6
개발도상국	-4.7	19.8	19.1
중동부유럽국 ^c	5.6	16.1	14.0

- a.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공화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루마니아
- b.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독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 c. 알바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몰도바,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Foreign trade turnover in total and by countries', 2013. 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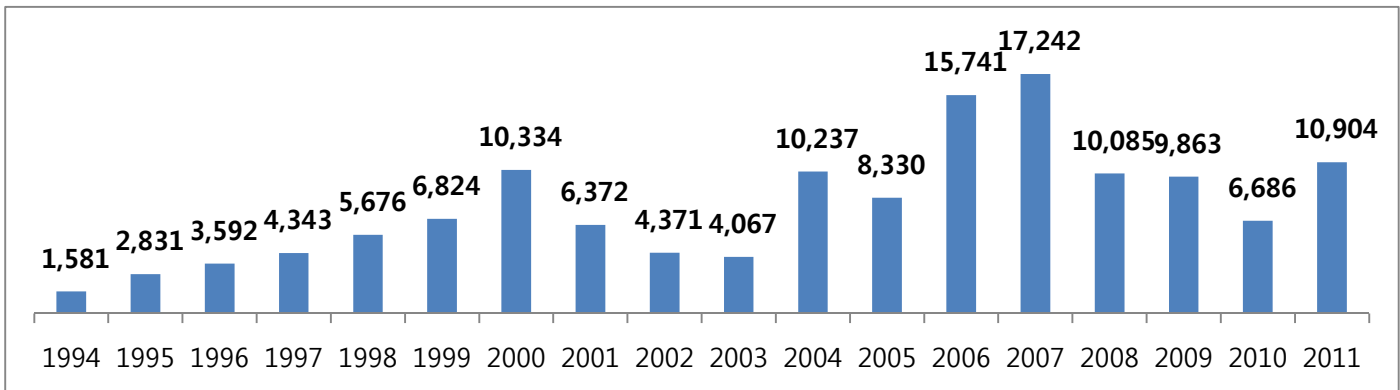
나. 투자 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동향

-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 진출은 2004년 EU 가입을 계기로 급증하여 2011년에는 누적액 1,975억 3천8백만 달러로 중동부유럽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성장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1년 폴란드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액은 1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71% 가량의 성장률을 보임
 - 이는 EU 가입국가 중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중동부 국가 중에서는 최대 유치액

<폴란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연도별 동향>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 폴란드 투자청(PAIZ), 2012

- 그러나 UNCTA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Dziennik Gazeta Prawna지 A3면, 2013. 01. 24)
- 최근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아웃소싱(BPO), 자동차, R&D 순이며, 그 밖에 ICT, 기계산업에도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폴란드 투자청, 2013. 1. 13)
- 국별로는 미국에서의 투자 유입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최근 투자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

○ 폴란드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

- 폴란드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우호적으로, 폴란드는 UNCTAD가 2012년 발간한 세계 투자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11)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다음 3년간 중요 투자처로 지목한 국가 중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14위(2011년 발표 6위)를 차지함

- 또한 2012년 6월에 발표된 Ernst & Young 2012 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에서도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국 10위안에 들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목함
- 폴란드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배경으로는 안정된 정치 환경 및 서유럽 주요 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규모 및 내수시장 등을 들 수 있음

다. 환율

○ 외부 요인에 취약한 폴란드 즈워티화 환율

- 폴란드 즈워티화는 2011년 EU국가들의 재정 불안에 따른 국제 환율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절하를 겪음
- 2012년에도 폴란드 즈워티화는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보이며 최고 10%의 큰 변동폭을 보인바 있음
 - 2012년 초 건실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즈워티화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3월에는 유로당 환율이 4.1즈워티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그리스 총선 결과 등으로 인한 유로존 내 위기감의 확산으로 다시 급격히 상승하며 최고 4.4즈워티까지 치솟음
 - 하반기에는 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8월에는 1유로당 4.06즈워티(달러당 환율은 3.28즈워티)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즈워티화가 강세 전환
 - 이러한 즈워티화 가치 절상은 물가 안정 및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폴란드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수출 위축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

<최근 1년간 유로화 대비 즈워티화 환율 변동 (2013년 1월 31일 기준)>



자료원: www.stooq.com, 2013. 1. 31

- 즈워티화의 환율 변동은 앞으로도 폴란드 정부의 국내 정책 보다는 유로존내 재정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폴란드 국내 경기의 상승으로 즈워티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달러/유로화 대비 즈워티화 연 평균 환율 변동 현황 및 전망>

단위: 즈워티(PLN)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USD/PLN	2.41	3.12	3.02	2.96	4.01	4.00	3.86	3.64	3.54	3.46
EUR/PLN	3.52	4.33	3.99	4.12	4.20	4.05	3.95	3.75	3.60	3.51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2013. 01

라. 물가 지수

○ **인플레이션**

- 2011년 폴란드의 연 평균 물가상승률은 꾸준한 내수 증가와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즈워티화 약세로 인한 수입 부담 증가, 부가세 등 간접세의 인상 등으로 연평균 4.3%(CPI, 폴란드 통계청 기준), 유럽통계청 집계 기준은 3.9%(HICP)를 기록함
- 이는 폴란드 중앙은행(NBP)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5±1%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2012년 3분기까지 관찰됨
- 그러나 4분기 들어서 내수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10월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3.4%와 2.8%를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최근 2년 간 최저 수준인 2.4%를 기록함(폴 통계청)
- 전문가들은 2013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3%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금리**

- 즈워티화의 가치 절하와 높은 유가의 상승으로 목표치 범위를 벗어난 물가상승이 지속되자 지난 5월 10일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 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4.5%에서 4.75%로 상향 조정함
- 반면 3분기 이후 발표된 하반기 GDP, 수출, 수입 등 주요 경기 지수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수 경기도 경색되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 11월 폴 중앙은행은 6개월만에 금리 0.25%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디플레이션 조짐이 계속 되자 폴란드 중앙은행은 12월과 2013년 1월에 각각 0.25%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4.0%임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 동향>

단위: %

날짜	정책금리	롬바드금리	예치금리	재할인율
2011. 6. 9	4.50	6.00	3.00	4.75
2012. 5. 10	4.75	6.25	3.25	5.00
2012. 11. 7	4.50	6.00	3.00	4.75
2012. 12. 6	4.25	5.75	2.75	4.50
2013. 1. 10	4.00	5.50	2.50	4.25

자료원: 폴란드 중앙은행(NBP)

마. 노동 시장

○ **실업률**

- 2011년 폴란드의 실업률은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여 연 평균 12.4%를 기록함
- 2012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1분기 실업률 13.2%, 2분기 12.6%, 3분기 12.4%, 4분기 12.9%를 기록함
- 이는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의 축소와 함께 유로대회 관련 임시 고용의 종료, 건설업계의 부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임금 상승률**

- 2011년 폴란드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Gross Wage, 수령 총액 기준)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임금상승률(3.9%)보다 높은 5.4%의 상승률을 보이며 3,399.52 즈워티를 기록함
- 임금의 상승세는 2012년에도 이어져 2012년 1분기 월 평균 임금(Gross Wage)은 전년 대비 5.2% 상승한 3,646.09즈워티를 기록함
- 그러나 2분기부터는 고용시장이 경색되며 3분기에는 실질 임금이 1.4% 감소한 3675.8 즈워티를 기록함
- 2012년 12월 기업부문 월 평균 임금은 3,780.64 즈워티인 것으로 조사됨

○ **최저 임금**

-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2013년 최저 임금은 월 1,600 즈워티로 6.67% 인상됨